

기도

1. 게으르고, 죄악된 것에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행하였던 적이 있습니까?
2.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통해 지혜를 깨달은 적은 언제입니까?

신앙

바이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는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관점으로 현재 당하는 고난을 생각해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기에 우리도 그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겨 나가야 한다는 핵심적인 진리를 제시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교회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거룩이 요구된다고 주장합니다.

구역 공과

2022년 3월 27일

깨어 일어나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깨어 일어나라

잠언 6장 6~11절 (29장, 206장)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도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개미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게으른 죄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를 얻으라는 말씀입니다(6~8절).

게으른 자는 세상적으로 게으른 자이기도 하지만 성도에게는 영적으로 게으른 자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게으른 성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영의 것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힘쓰는 성도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것은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6절). 첫째, 부지런한 것이 개미의 지혜입니다. 개미는 꾸준히 변함없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자신의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부지런히 움직이고, 영의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개미의 지혜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습니다(7절). 개미는 누가 시키거나 억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겐 우리 영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준비하는 것이 개미의 지혜입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고 말씀하셨습니다(8절). 개미는 겨울에는 양식이 없는 것을 알고 미리 미리 준비를 합니다. 겨울은 성경적으로 환란의 때를 의미합니다. 성도가 환란의 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환란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환란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환란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미리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때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 개미의 지혜입니다. 여름에는 양식이 있고, 추수 때에 모아야 할 때인 것을 알고 겨울에는 양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일어날 때이고, 지금이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어려운 것 같아도 주를 위해 일어나서 은혜 받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게으른 자의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9~11절).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9절). 게으른 자는 악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마25:26).

게으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행하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죄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타락했고, 죄로 가득 차 있고, 그 최악의 저주를 우리가 받고 있었습니다. 최악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게으른 죄를 회개하고,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죄의 특징은 첫째, 우리를 잠들게 만듭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9절). 이처럼 죄는 누워 있게 만들고, 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신앙의 잠이 들게 합니다.

둘째, 더 깊이 빠지게 만듭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10절). 이처럼 죄가 우리를 깊이 빠지게 만들어서 더욱 더 게으름에 빠지게 만듭니다. 강도와 군사와 같이 임한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빈궁과 곤핍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강도와 군사는 예고하지 않고 우리가 모르게 찾아오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게으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신앙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궁핍함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의 깊은 곳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연을 통해서, 개미를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잠들게 만들고, 더 깊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영적은 게으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환란을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